

# 종교평화불교인 선언...불교 정체성 혼돈 우려된다

봉은사 지신 밧기 등 일부 이웃 종교인의 불교에 대한 광신적 공격과 정부의 종교 편향정책으로 고통 받던 불교계가 이에 대한 답을 내 놓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금년 8월 23일 “종교평화와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초안)”(이하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이웃 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열린 진리관’과 이웃 종교와 불교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동반적 관계라는 ‘종교 다양성의 존중’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전법(傳法)은 다른 종교인을 개종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전법의 원칙’과 자신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 공격 지위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활동’의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

이 선언은 한국 불교가 종교 갈등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전통에 따라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웃 종교와 더불어 고통 받는 생명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선언의 ‘열린 진리관’과 ‘전법선언’ 등에 대해서 불교계 내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 여론 수렴과정에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이 선언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지적할 수 있는 이 선언의 문제는 종교단체가 사회를 향해 내놓은 대사회적 선언임에도 다양한 종류의 듣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불교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선언이 가르침을 내리는 교시(敎示) 또는 자기 종교의 신앙고백 같이 들리고 불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어느 때는 종교의 진리가 둘이 아니라고 했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의 존중을 말하기 때문이다. “종교가 다른 것은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데 같은 나라에 살면서 언어와 문법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예기인가? 일반인에게는 더욱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될 뿐이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법으로 표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고백 같이 들릴 수 있다.

또한 이 선언은 일반 불교신자들이나 불교로 전향을 고려중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 만일 종교의 진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구태여 믿기만 하면 천당에 가고 복을 받는다는 이웃 종교를 마다하고 불교를 믿을 이유가 있겠는가? 만일 선교의지가 강렬한 이웃 종교인이 불교인에게 “너희 불교와 우리 종교는 다르지 않다고

하니 우리 종교로 개종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개종을 손쉽게 권유할 빌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둘째, 이 선언은 ‘종교 다양성의 존중’과 함께 “이웃 종교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상에는 다원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종교적 관용과 다원주의에 관해, 그리고 이웃 종교들의 다른 종교와의 종교적 차이에 대한 입장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선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다원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려면 자기와 다른 종교에 대해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 1960년대부터 다원사회에 눈 뜬 종교들은 자기 종교와 이웃 종교의 차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종교들의 입장은 절대주의, 포괄주의, 그리고 다원주의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절대주의는 자기 종교만 참되고 다른 종교는 그릇된 종교이거나 구원을 향한 인간적 노력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가진다. 포괄주의는 절대주의에서 변형된 형태로 자기 종교가 유일한 종교지만 구세주는 예수 이외에도 크리슈나, 이스바라, 붓다 등에서 현현될 수 있다는 융통성 있는 입장을 취한다. 다원주의는 자기 종교만이 절대적 계시의 결과가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구원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톨릭은 1962년 바티칸 제2공의회에서 ‘非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2에서 다른 종교들도 “인생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애써 왔다”고 다른 종교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힌두교와 불교의 예를 들면서 불교에 관해서는 “불교에서는 여러 종파에 따라 이 무상한 세계의 근본적 불완전성을 극복하고, 신성과 화신으로 완전한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자기 노력이나 위의 도움으로 궁극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직 포괄주의 입장이라고 해석되지만 다른 종교들과 대화의 길을 열었고 이후 가톨릭 교세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한국의 개신교는 대부분 아직 절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제조직인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990년 〈바르 선언: 다원성에 관한 신학적 관점〉을 기점으로 종교 다원주의 입장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 얻을 길이 있다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원의 신비는 “그리스도

의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WCC의 선언에 대해 개신교 내에서 많은 반발과 이견(異見)이 있다. 그러나 2013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예정인 WCC 10차 총회에 한국 개신교 여러 분파들이 함께 참여한다면 개신교는 WCC의 간판을 내세워 대대적인 한국 선교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슬람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라는 점에서 기독교와 유사하나 종교의 탄생과정에 서부터 유대교, 기독교 등이 존재하는 다종교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독교와 유대교를 인정하고 출발했다. 코란에 의하면 인류사회에 다종교 사회가 나타난 것은 “어느 공동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또 선행을 행함에 있어 앞서서 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호메트가 최후의 신의 사자라고 본다는 점에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은 다원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이며 비신자에 대해서는 절대주의적 입장이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무신론자는 용납되지 않는다.

1990년 이슬람회의기구(OIC)가 채택한 카이로인권선언은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이슬람의 대안으로서 이슬람의 다원주의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적용을 받게 돼 있어 아직은 절대주의 또는 포괄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를 확고하게 정착시킨 터키 공화국과 수십 년 간 금지됐던 바하이교의 활동을 다시 허락한 최근 인도네시아의 정책은 이슬람 세계에도 종교 다원주의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용이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러한 차이를 받아주고 존중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선언은 차이와 상호존중을 말하면서도 진리가 다르지 않다고 차이를 부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일 종교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면 구태여 이웃 종교를 마다하고 불교를 믿을 이유가 있겠는가? 또한 애써 불법을 전파할 전법(傳法)의 이유가 없게 된다. 진리로 가는 길은 여럿일 수 있지만 종교들이 추구하는 진리가 같은지 다른지는 누구도 일반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종교들의 진리가 다르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고 다원주의가 아닌 포괄주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불교는 이웃종교를 관용하는 불교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다종교 사회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종교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해 조계종 사부대중들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매년 걸어왔다.

## 비불자에게는 신앙고백처럼 들려 불교의 정체성 무엇인지 의문

에서 불교가 이웃종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셋째, 이 선언은 현재 한국 불교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 한국 불교는 아쇼카 대왕과 같이 강한 입장에서 이웃 종교를 불교 안에 포용할 입장에 있지 않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B.C.168-B.C.305 동안 인도를 통치했던 아쇼카 대왕은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후 정복전쟁의 처참한 상황을 목도하고 불교신자가 돼 불교의 관용 정신을 국가정책에 구현했던 인물이다. 그는 붓다의 정법, 즉 다르마(dharma)에 의해 국가를 통치했다.

그가 추구한 것은 개인의 종교적 구원이 아니라 차원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취하는 태도, 즉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과 사회활동에 있어서 인간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이었다. 그의 관용정책은 인도 천하를 통일한 강력한 통치력을 배경으로 했으며 강자 또는 다수파가 신념을 달리하는 소수파에 대해 강자의 지배적인 위치를 인정하는 조건에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살도록 허기게 주는 관용의 여러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①허가(permission)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관용에는 허가의 개념을 포함해 ②권력이 비슷한 양측이 갈등보다 공존을 추구하는 공존의 개념(co-existence), ③공통의 사회생활을 당사

자들이 동등하게 합의하는 규범에 따라서 영위하기로 합의하는 관용의 형태인 존중의 개념(respect), ④서로 다르지만 윤리적으로 존경하고 매력적이라고 보는 존경의 개념 등 네 가지 개념이 있다.

한국 불교는 현재 이웃 종교들과 공존을 추구해야 할 형편이지 강자의 입장에서 이웃 종교를 인정하는 허가 개념의 관용정책을 추구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본다. 아쇼카 대왕의 정책은 불교의 자랑스러운 정신적 유산이지만 21세기 한국 불교의 정책적 모델로 삼기에 적절한지, 그리고 아쇼카 대왕의 정책을 어떻게 21세기적 상황에서 알맞게 적용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이 선언에서 제시 또는 암시하고 있는 불교 교리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불교와 이웃 종교가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교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부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뉘뉘에 비유한 것은 자기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부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로 유추 해석해도 되는가? 또한 이 선언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레(乘)의 개념을 이웃 종교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법화경에서 수레(乘)를 말씀하신 것은 미혹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일불승 등 부처님의 교법을 말한다거나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러한 수레의 개념을 다른 종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교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이 선언은 “차이를 무시한 채 결국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종교의 관점으로 수렴해 버리는 것은 이웃 종교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앞 부분에서 “종교가 다른 것은 서로의 진리가 달라서 아니라 진리를 표현하는 언어와 문법이 다를 뿐입니다.”라는 표현과 모순되게 보인다. 이 선언은 차이점의 존중을 말하고 있으나 동시에 진리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어 혼란스럽다.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여럿임을 보여주셨으나 과연 종교적 진리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 과분한 탓인지 모르나 필자는 〈법화경〉의 “만법은 하나라[萬法歸一]”라는 말씀은 들어 보았지만 “만법은 하나다[萬法是一]”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21세기 아쇼카 선언은 다종교 사회에서 불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매우 중요한 선언이다. 이선에서 지적한대로 이 선언이 대사회적 선언임을 감안해 여러 종류의 듣는 청중들을 진지하게 배려하고, 종교적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연구하며, 한국불교가 처하고 있는 종교적 상황을 예리하게 검토하고, 선언의 내적 모순점과 교리와 의 모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보다 정리되고 완박한 최종 선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천구(서울대 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 강좌

-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11. 12. 17(토) 오후 1시부터 ~ 12. 18(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7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찻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7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12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12월 개강. **매주(월, 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